

Unit 3 by Sangmoon Nam

홍은동 문화촌 지역역사문화관

‘홍은동의 전설’ 김관식 (중앙일보, 2009)

같은 홍은동 산동네에 살면서 김광주를 ‘쓰레기 작가’라는 표현으로 모멸했던 김관식은 김광주보다 3년여 앞선 1970년 8월 30일 타계했다. 그의 나이 고작 서른여섯이었다. 그 짧은 생애는 온갖 기행과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주벽으로 얼룩져 있었다. 말년에 그의 육신은 아직 젊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간·위·폐가 모두 만신창이였다. 그러나 숨이 끊어지기 전날까지도 그는 홍은동 산동네에 위치한 그의 집 안방에서 술을 퍼마셨다. 천장에 매달아 놓은 찌그러진 술주전자를 하염없이 바라보며 "저놈이 날 죽였다"고 중얼거리면서. 김관식이 홍은동 산꼭대기 못 미친 곳에 정착해 10년을 살았던 일은 아직도 전설처럼 남아 있다. 그가 그곳 시유지 600여 평을 무단 점거해 멋대로 집을 지은 것은 61년 가을이었다. 7월의 민의원 선거 때 장면에 맞서 서울 용산 갑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직후의 일이다. '나라 땅이 백성 땅인데 시유지·국유지가 어디 있느냐'는 두둑한 배짱이었다. 그의 목표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자신을 패배시킨 장면 정권에 정식으로 도전하겠다는 것, 다른 하나는 그곳에 '시인의 마을'을 건설하겠다는 것이었다. 가난한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 터를 다지고 푹푹푹 불과 며칠 사이에 블록 집 한 채가 완성됐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순식간에 집을 허물어 버렸다. 지으면 허물고, 허물면 짓고 하는 공방이 수없이 되풀이됐다. 여덟 번째 집이 허물어지고 아홉 번째 집이 지어졌을 때 김관식은 지붕 위로 올라가 술을 병째로 들이켜면서 밑에 도열해 있는 경찰관들을 향해 허물 테면 허물어 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마침내 경찰관들이 손을 들고 말했다. 경찰관들이 철수하자 김관식은 '내가 장면 정권에 이겼다!'고 환호하며 동네 사람들을 모두 불러 큰 술잔치를 벌였다. 김관식의 집 짓기에 속도가 붙었다. 무려 열 채의 집이 완성됐다. 헐값에 팔아넘기는가 하면 세를 들이기도 했고,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들어와 살게 하기도 했다. 남은 땅은 자기 땅인 양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60년대 중반 중앙정보부 직원이었다가 동백림 사건으로 물러난 소설가 이규현은 김관식에게서 물려받은 땅에 집을 짓고 살았다. 시인 백시걸도 홍은동 산동네의 식구가 되었다. 충주에 살던 신경림의 다섯 식구가 김관식의 간곡한 권유로 그곳에 정착한 것도 그 무렵의 일이었다. 박재삼도 끈질긴 권유를 받았으나 건강 문제로 매일 가파른 산동네를 오르내릴 일이 난감해 포기하고 말았다. 홍은동 산동네가 차츰 안정돼 가면서 문인 술꾼들의 출입이 잦아지기 시작했다. 김관식과 가장 친했던 천상병·고은 등이 대표적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술자리가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괴롭고 암울한 현실을 잠시나마 잊어 보려는 몸부림이기도 했다. 신경림의 '산동네에 오는 눈' '산1번지'와 조태일의 '홍은동의 뽕꼭새' 등 그 무렵 홍은동의 삶을 읊은 시도 여러 편 나왔다. 술 속에 파묻혀 살면서도 김관식 역시 전보다 많은 시를 썼다. 특히 68년 '사서삼경(四書三經)' 중 가장 어렵다는 '서경(書經)'을 완역 출판한 것은 홍은동 시절의 크나큰 수확이었다.

Unit Master

남상문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설계 스튜디오를 수석 졸업하고 동 대학원을 거쳐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마곡

서울식물원, 화성 모두누림센터, 삼성 그린 투모로우 등 다수의 문화, 업무, 주거, 친환경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건축사KIRA 취득 후 날곳건축사사무소를 개소하고 장소성, 구축성,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작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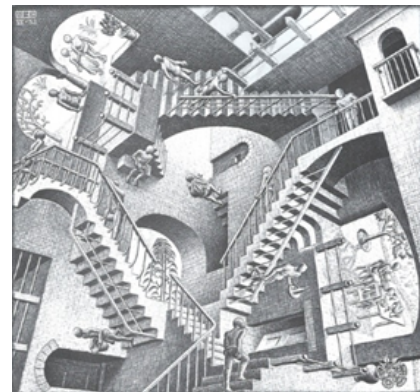
충남건축문화대전 심사위원, 영주 행정복지센터 심사위원, <건축과 사회> 편집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건축교양서

『지붕 없는 건축』, 『새를 초대하는 방법』을 썼고 다양한 매체에 건축 평론 및 도시·환경 관련 글을 기고하고 있다.

Unit Agenda

주제 //

2학년 1학기는 주어진 대지 없이 형태, 공간, 기능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 용도의 소규모 단일 건물(단독주택)을 계획했다. 이번 학기는 주제와 범위를 확장해 건물이 도시 조직의 일부로 어떻게 자리 잡고 기능하며 주변과 관계 맺는지 도시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실제 대지를 대상으로 중규모의 다중이용시설(전시문화시설)을 계획한다. 건물과 도시는 알도 로시가 지적한 대로 부분과 전체의 관점에서 오랜 세월 동안 반복, 재생산되어 온 형태적 유형학typology나 시각적 도시 경관으로 읽히기도 하고, 역사/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상징, 의미, 관습 등을 통해 관계 맺기도 한다. 르페브르는 『공간의 생산』에서 도시 공간을 사람들이 실제 생활하는 물리 공간(공간적 실천), 도시계획가나 건축가가 도면을 통해 사고한 추상 공간(공간의 재현), 사람들의 경험과 기억, 정서가 축적된 상징 공간(재현적 공간)으로 구분했다. 그는 이러한 구분을 통해 도시가 단순히 고정된 사물이나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다양한 층위에서 충돌하고 서로 관계 맺으며 사회적으로 복잡하게 생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도시를 무한한 다양성과 차이를 품고 있는 잠재성의 영역이자 변화의 동력으로 보고,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통해 자본과 권력, 전문가 집단에게 빼앗긴 “도시에 대한 권리”를 회복하려는 시도이다. 따라서 건축은 형태와 공간 미학을 넘어 기억과 장소를 잇는 매개이자 도시민의 일상을 재구성하는 유연한 사회적 응축기가 되어야 한다.



Nolli Map of Rome, 1748
M. C. Escher, Relativity, 1953

방법 //

홍은·홍제동 문화촌은 1950년대부터 박화목, 김관식, 이해랑 등 당대 문화예술인 30여 명이 집단 거주했던 지역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고 개발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기록이 소실되어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다. 따라서 우리는 잊힌 지역문화를 발굴하고 현시대에 맞게 창의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1950년대 문화주택이 밀집해 있던 천주교 홍은동 성당 일대, 홍은동 48-12~19번지에 문화촌 지역역사문화관을 계획한다. 이 대지는 홍제천을 마주하고 홍은중앙로에 길게 접해 있어 조망과 접근성이 양호하고 홍은종합사회복지관과 인접해 있어 공공서비스 제공에 유리하다. 지리적으로는 자연 하천인 홍제천과 대단지 아파트(홍은동 벽산아파트) 사이에 위치해 도시 조직의 규모, 스케일, 구성, 성격 등에 있어서 전이 공간 역할을 한다. 이 일대는 주거와 상업시설이 혼재되어 있지만 대체로 낙후되어 있다. 먼저 학습자는 현장 답사와 자료 조사를 통해 대지의 역사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배경 등을 파악하고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각자 대지가 가진 도시적 맥락을 해석하고 장소의 성격을 정의한다. 주어진 설계 조건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대지가 가진 잠재성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건물이 어떤 원리와 수단에 의해 만들어져야 하는지 명료하게 정리해 나간다. 설계 조건은 아래와 같다.

설계 조건 //

용도_ 전시문화시설

프로그램_ 상설/특별 전시실, 다목적홀, 세미나실, 교육실, 학예/관장/자료/사무실, 편의시설, 기계전기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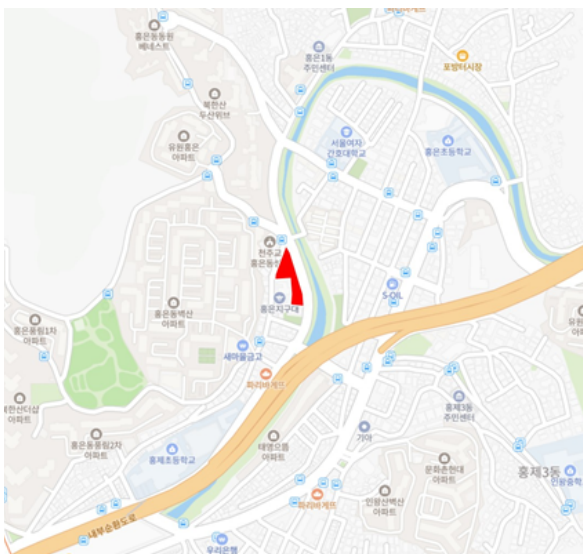
대지_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48-2~19번지 일대 (3종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_ 약 1,750㎡, (토지이음 홈페이지 참고)

건축면적_ 약 875㎡ 이하 (법정 건폐율 50%, 용적률 250% 이하)

연면적_ 지상층 연면적 1,500㎡ 이하 (지상5층 이하, 지하층 자유)

주차장(서울시 조례 참고) 및 외부공간 계획할 것, 피난 및 안전, 장애인 관련 법규 준수



개인 과제 설계에 앞서 케이스 스터디 조별 과제를 수행하고 사이트 콘타 모형을 공동 제작한다. (총4주)

케이스 스터디 프로젝트 (조별 과제, 3주)

자료 조사 및 발표, 평입단면도 작도(scale 1/50~100) 핀업, 모형 제작(scale 1/50)

1조 _ Rafael Moneo, National Museum of Roman Art, 1986

2조 _ Alvaro Siza, Galician Center of Contemporary Art, 1993

3조 _ Alvar Aalto, Viipuri Library, 1935

4조 _ 김수근, 공공일호 구)생터사옥, 1979

5조 _ Maekawa Kunio, Museum für Ostasiatische Kunst(쾰른 동아시아 미술관), 1977

(수강 인원 에 따라 조정)

사이트 콘타 모형 제작 (협동 과제, 1주)

가로 세로 약 300 x 400 m, scale 1/200



참고도서 //

「서울 어바니즘」, 이상현, 공간서가 (필독)
「서울은 기억이다」, 연구모임 공간담화. 도시사학회, 서해문집
「사람을 위한 도시」, Jan Gehl, 국토연구원
「도시의 건축」, Aldo Rossi, 동녘
「건축강의8 _ 부분과 전체」, 김광현, 안그라픽스 (전 10권)
「건축가의 언어26」, Andrea Simitch, Val Warke, 도서출판 집
「건축을 이해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건물 25」, Simon Unwin, 기문당
「Analysing Architecture」, Simon Unwin, Routledge
「Constructing Architecture」, Deplazes/Andrea, Birkhauser (국내 번역서 참고)
「건축을 말한다」, Adrian Forty, 미메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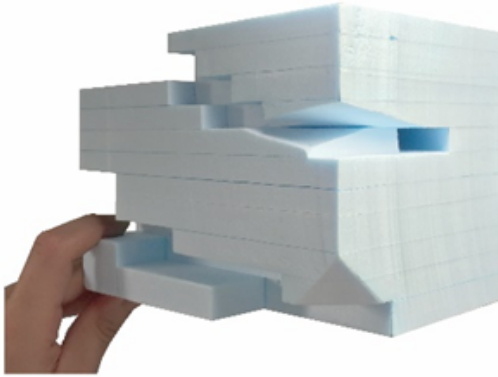
결과물 //

Mid Review

A1 출력, 핀업 (색상 자유)
사이트 분석 및 개념 다이어그램, 엑소노메트릭, 드로잉 등을 자유 구성
배치도, 각층 평면도, 단면도 2장 이상 (scale 1/50)
피지컬 모형 (대지+건물, scale 1/50, 재료 자유), 매스 모형 (1/200), 모형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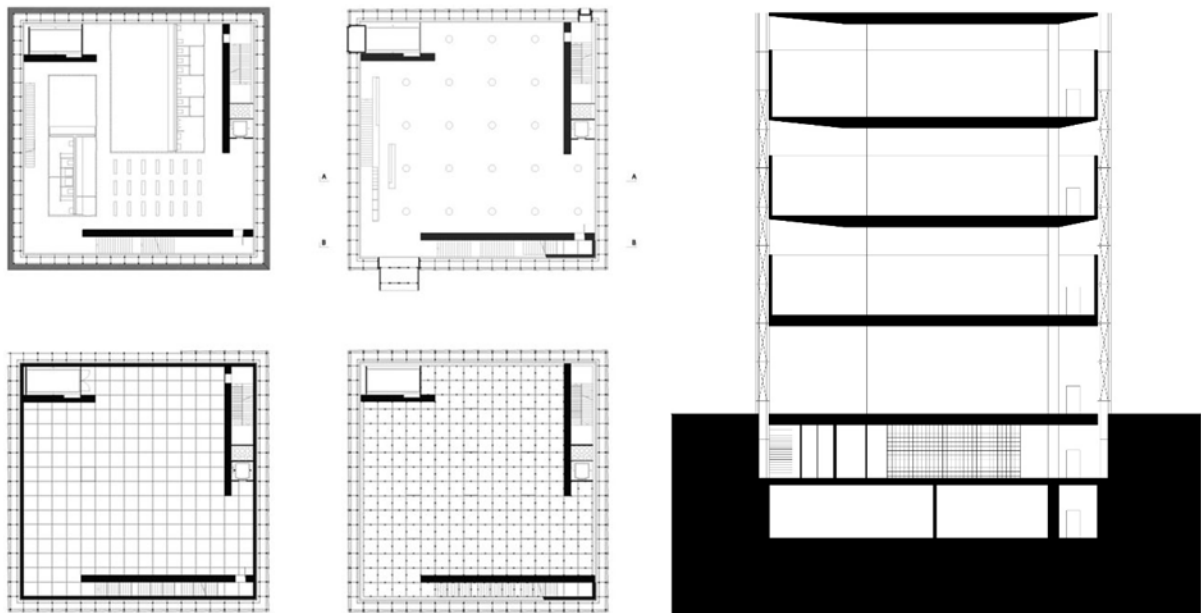
Final Review

A1 출력, 핀업 (색상 자유, 10매 이내)
사이트 분석 및 개념 다이어그램, 엑소노메트릭, 드로잉 등을 자유 구성
배치도, 각층 평면도, 입면도 2장 이상, 단면도 2장 이상 (scale 1/50)
피지컬 모형 (대지+건물, scale 1/50, 재료 자유), 매스 모형 (1/200), 모형 사진
파사드 상세도는 선택 (스케일, 표현 자유)
3D 렌더링은 선택 (외부 3컷, 내부 3컷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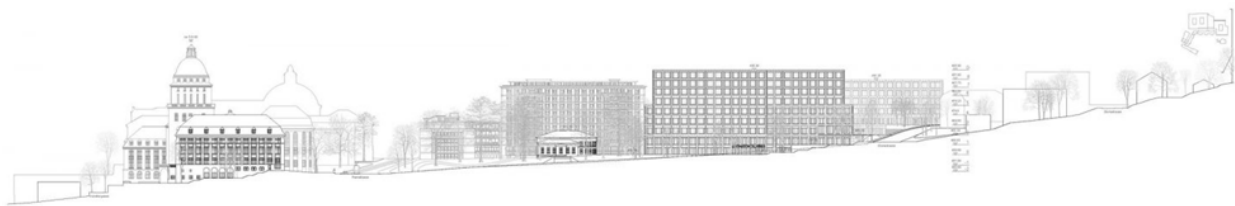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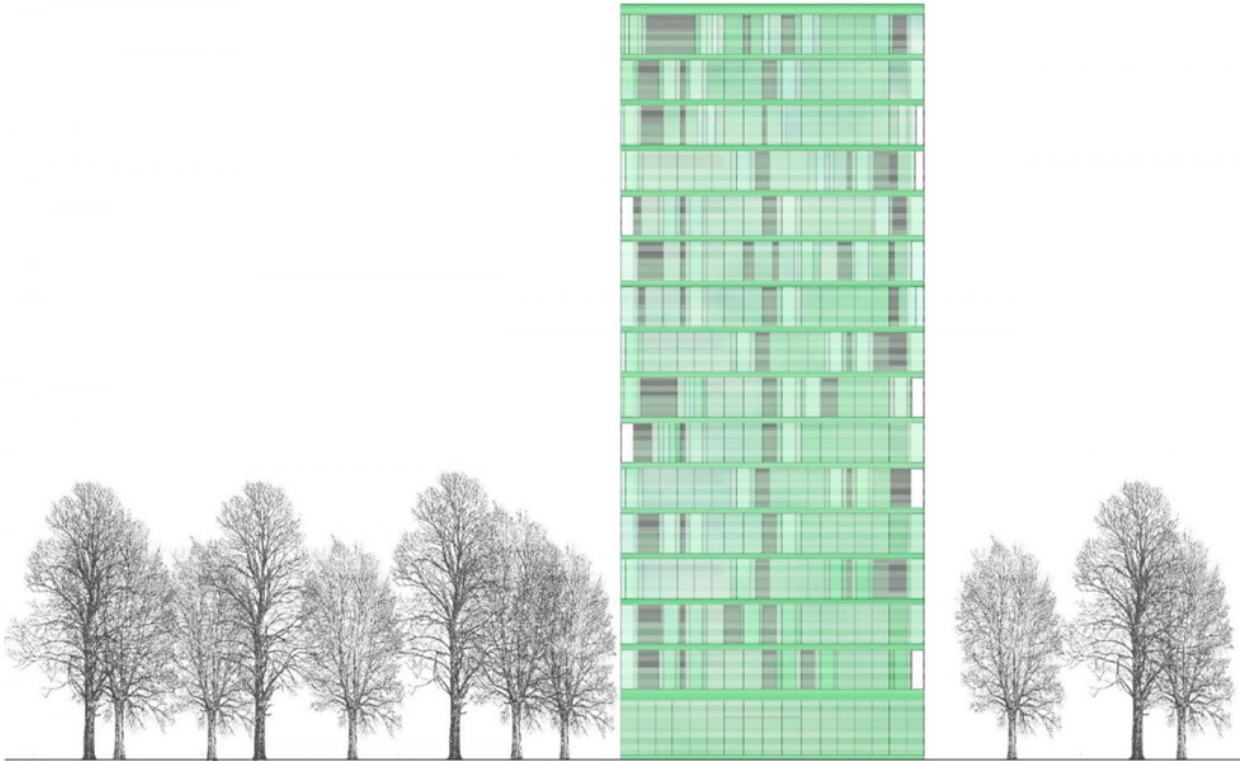
Concept Model, Mass Study Model

OMA, Galleria, S. Korea
Herzog & de Meuron Exhibition



Drawings (plan, section)

Peter Zumthor, Art Museum Bregenz, Austria
 Miller & Maranta, Hardstrasse, Switzer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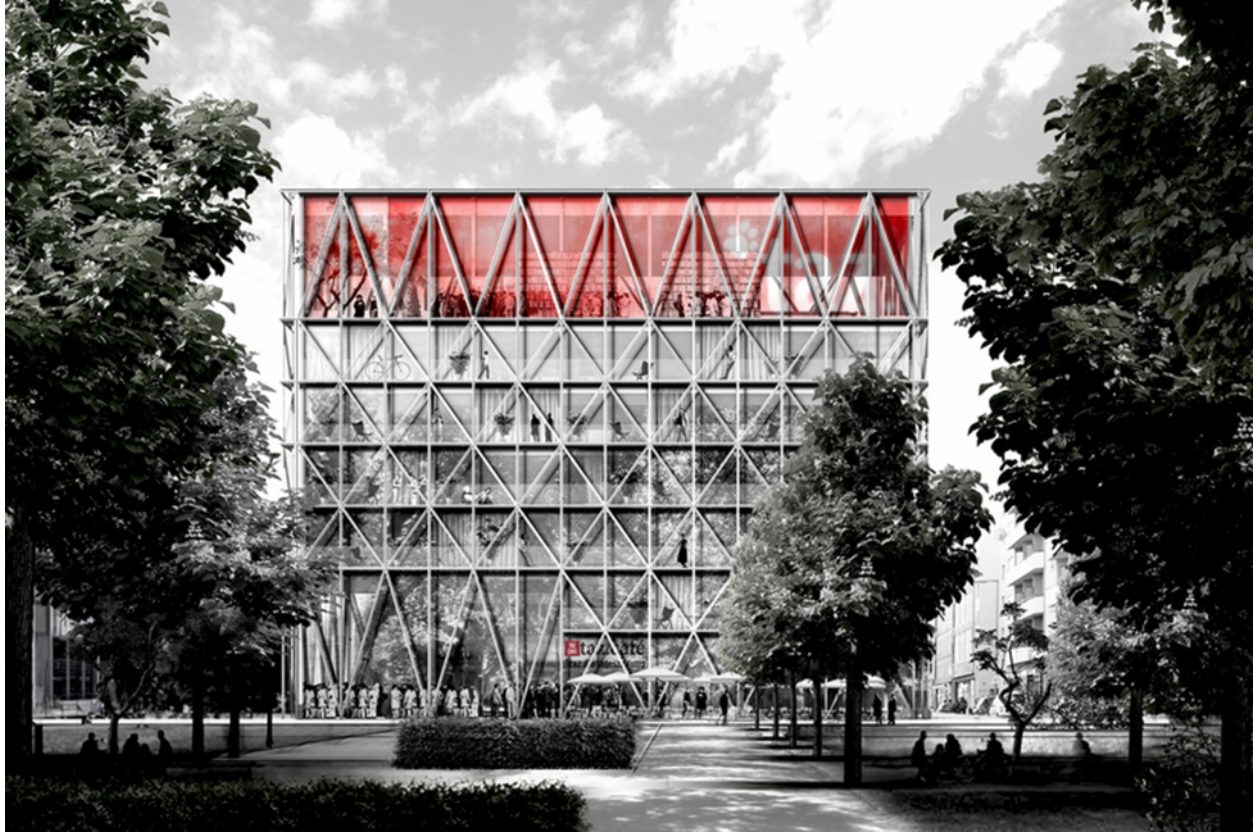
Drawings (elevation)

Gigon & Guyer, Residential Towers Kattendijkdok, Belgium
Gigon & Guyer, University Hospital Zurich Core Site



Final Model

Herzog & de Meuron, 1111 Lincoln Road, USA
Buchner Bründler Architekten , Net-Zero House, Switzerland



CG

E2A, Taz Office Building, Berlin
Diener & Diener, Tech Cluster Zug, Switzerland

평가 //

조별 과제 10%, 개인 과제 30%, 중간발표 25%, 기말발표 25%, 출석 10%

과제는 매 수업 시간 작업량과 수업 태도, 스스로 찾아서 학습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를 중요하게 평가한다.

매주 개인 크리틱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면 과제 점수에서 감점한다.

Mid / Final Review는 작업 과정과 완성도를 모두 평가한다.

Mid / Final Review에는 외부 게스트 크리틱 1인을 초청하고 게스트의 평가를 점수에 최대한 반영한다.

완성도와 무관하게 마감 양식과 기한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미리 상의할 것)

사전 협의한 마감 양식과 시간을 준수하지 못하면 영점 처리한다. (마감 시간 절대 준수할 것)

Mid / Final Review 중 하나라도 제출·발표하지 않으면 낙제 처리fail 한다.

학점은 A- 이상(A-, A, A+)을 전체 인원의 최대 40%로 한다. B+ 이하는 제한이 없다.

수업 태도와 과제 수행이 미진한 학생은 사전 경고 1회 후 교수위원회에서 심의해 낙제 처리할 수 있다.

수업 운영 //

수업은 발표와 데스크 크리틱으로 진행된다. (때에 따라 외부 초청 강연, 현장 답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음)

학생들은 정규 수업 시간 중에는 설계실에 머물러야 한다.

크리틱이 끝난 학생은 정규 수업 시간 이후 별도 허락 없이 퇴실할 수 있다.

정규 수업 시간 이후 전체 공지 사항이나 공유할 정보가 있으면 단톡방에 공지한다.

크리틱 순서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상의해 정할 수 있다.

매주 작업한 과제는 개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관리하고 정해진 기한 안에 런어스에 업로드 해야 한다.

중간 마감 이후 피난 및 안전 관련 교육 자료를 참고해 피난 계획도와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Final Review 이후 진행되는 플로어 전시와 라운드 테이블에 적극 참여한다.

플로어 전시에서 발표할 학생 2인은 자원 받고, 자원자가 없으면 교수진이 지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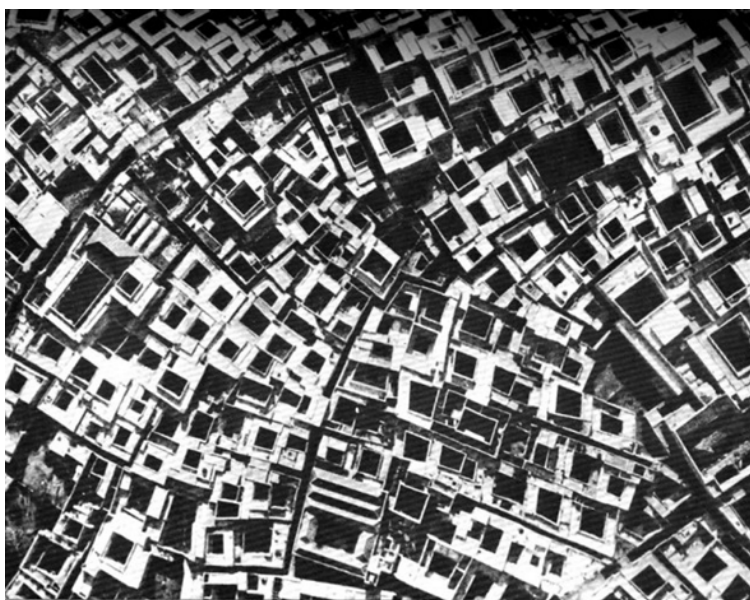
Mid / Final Review, 플로어 전시 발표자는 복장을 갖춰 입는다. (운동복, 반바지, 슬리퍼, 모자, 후드티 등 금지)

UNIT 지원자들에게 알림

이 수업은 3, 4학년 Studio X의 선행 과정이다. Studio X는 많은 작업량과 완성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2학년 설계 수업에서 건축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건축 프리젠테이션 기법 역시 충분히 연습해야 한다.

시행 착오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고 시도할 것.



Sangmoon Nam

nsm.dayplace@gmail.com

010.6270.5668